

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

1. 중기재정여건의 전망

□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성장세 완만한 회복 전망

- 세계경제는 2009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성장세의 완만한 회복을 통해 소폭 상향(0.5%)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,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부실 및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시 경제회복에 부담 가능성 상존
- 국내경제는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, 세계경제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2010년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4%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며, 2011년 이후부터는 잠재성장률 4%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
□ 저성장 추세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

-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하여 일관된 감세 추진
- 국가적으로 비과세·감면 확대, 비과세자 비율 제고 등에 따라 세입 기반 확충에는 한계

□ 반면,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·사회안전망 확충, 경제 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 강화 등을 고려 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

-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을 위한 지원
- 첨단의료·건강도시 및 문화도시 기반 확충
-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행, 중소기업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
- 에너지·환경 등 '저탄소 녹색성장' 분야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
-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점 및 신규사업 억제

2. 중기세입 전망

□ 자주재원은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($\Delta 2\%$ 대)

-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, 주행세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,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취·등록세 감소
- 주민세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 등에 따라 증가세 유지
- 지방소득세는 기업 및 공장유입에 따른 소폭 증가 예상
- 사업소세는 사업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 예상
-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평년과 비슷한 일정 수준 유지

□ 의존재원은 국가경제여건에 의해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

-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 증가로 증가할 것이나, '09년 정산분 미발생 등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국고보조금, 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, 국가기금, 도비보조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로 '09년 수준 또는 감소율이 하락할 전망
-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도세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소 전망
- '09년도 지방채 발행의 확대로 '10년도 신규 지방채 발행 여력이 크게 신장되지 못할 전망